

# 비대조 ‘은/는’의 실현 기제와 담화적 기능\*

— 구어 담화를 중심으로 —

서정숙\*\*

## 〈차 례〉

1. 서론
2. 비대조 ‘은/는’의 실현 기제
3. 비대조 ‘은/는’ 명사구의 실현 양상
4. 비대조 ‘은/는’의 담화적 기능
5. 결론

## 【국문초록】

정보구조적인 관점의 논의에서 비대조의 ‘은/는’은 선행 명사구가 문내 서술어의 언급 대상으로서 화제임을 표지하며 비대조 ‘은/는’의 선행 명사구는 대하여성, 한정성, 주어집성이라는 담화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보구조적인 관점의 논의는 선행 명사구가 화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주격 표지 ‘이/가’나 무조사구로 실현되는 경우, 동일한 발화 구조에서 주격 표지 ‘이/가’와 화제 표지 ‘은/는’이 실현되어 상호 교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적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구조적 관점의 논의가 안고 있는 설명적 한계를 담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비대조 ‘은/는’의 실현 기제와 담화적 기능을 살피고자 하였다.

비대조의 ‘은/는’은 통사 층위가 아닌 담화 층위와 관련을 맺는 문법 형태로 화제의 운용과 관련을 맺는다. 화제는 담화 이면의 추상적인 도식으로서 발화의 결속에 관여하며 비대조 ‘은/는’의 선행 명사구는 담화 화제의 중심축을 이룬다.

비대조 ‘은/는’명사구는 담화 화제의 중심축으로서 전제된 맥락을 필수 조건으로 하며 전

\* 날카로운 비판과 소중한 조언으로 논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 위원 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강남대학교 한영문화콘텐츠학과 초빙 교수

제된 맥락에 의해 청자에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화제로 담화가 시작되거나 담화 전개 과정에서 화제가 전환되어 이전 담화와 경계가 구분될 때 실현된다. 비대조의 ‘은/는’은 담화 표지로서 담화의 경계를 구분 짓고 새로운 담화의 영역이 설정됨을 표지하며 동일한 담화 영역 내에서 발화 간 응집을 이루는 결속 장치로 기능한다.

[주제어] 정보구조, 화제 표지, 담화 화제, 담화 층위, 화제의 운용, 맥락, 결속, 응집

## 1. 서론

대조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문장 내 주어 자리<sup>1)</sup>에서 실현되는 ‘은/는’은 그간 정보구조 논의 안에서 기능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정보구조 논의 안에서 비대조의 ‘은/는’은 초점 표지인 ‘이/가’와 대립을 이루며 선행 명사구가 서술어의 언급 대상으로서 문장 화제임을 표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2)</sup>

정보구조적인 관점의 논의에서는 화제를 담화적인 속성을 지닌 문장의 구성 요소로 보고 비대조의 ‘은/는’은 선행 명사구가 화제로서의 담화적인 속성을 갖추었을 때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보구조적인 관점의 논의는 구어 담화에서 선행 명사구가 화제로서의 담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주격 표지 ‘이/가’로 실현되거나 무조사구로 실현되는 경우, 동일한 정보구조를 이루는 발화문에서 ‘은/는’과 ‘이/가’가 실현되어 상호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적 한계를 지닌다.

1) 전제된 자매항과의 대조적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 ‘은/는’ 명사구는 주어 성분에서 높은 실현율을 보이거나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서도 실현된다.

2) 국어 문장에서의 주제와 논의는 이중 주어문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는데 박순환(1970), 임흥빈(1972, 1974), 신창순(1975), 김영희(1980), 김일웅(1980)에서는 ‘이/가’도 주제화의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 또 김일웅(1980)에서는 ‘이/가’의 선행 명사구가 담화적 구성보일 때는 주제를, 신정보일 때는 초점의 전달적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한편 전영철(2013)에서는 단일 주어문을 중심으로 ‘은/는’이 화제 표지 이외에 초점 대조 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보았는데 이들 논의들은 동일한 기능 단위를 표현하는 복수의 형태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 하나의 형태에 상보적 대립 관계에 있는 복수의 기능을 설정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선행 연구들에서의 ‘은/는’, ‘이/가’의 기능 설정과 관련한 문제가 층위 설정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며 ‘은/는’과 ‘이/가’는 서로 다른 층위의 실현 기제를 갖는 문법 형태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구조적인 관점의 논의가 안고 있는 설명적 한계를 담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비대조 '은/는'의 실현 기제로서의 담화 맥락과 담화 운용 및 비대조 '은/는'의 담화적 기능을 살피고자 한다.<sup>3)</sup>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먼저 비대조의 '은/는'과 관련한 정보구조적 관점의 핵심 논의들을 토대로 실제 구어 담화<sup>4)</sup>를 살펴봄으로써 비대조 '은/는'의 실현 기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비대조 '은/는' 명사구의 실현이 담화의 결속을 위한 화제의 운용과 관련되며 맥락적 전제를 기반으로 함을 논하고 비대조 '은/는' 명사구의 다양한 실현 양상을 살필 것이다. 4장에서는 비대조의 '은/는'이 궁극적으로 담화의 결속을 위한 응집 장치로서 기능함을 논하고자 한다.

## 2. 비대조 '은/는'의 실현 기제

비대조의 '은/는'은 일반적으로 화제 표지<sup>5)</sup>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화제는 정보구조적인 관점에서 서술어의 언급 대상으로서 문장 내 성분 즉 서술어와 기능적인 관계를 맺으며<sup>6)</sup> 담화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보구조적 관점의 논의에서는 화제를 대하여성,<sup>7)</sup> 한정성,<sup>8)</sup> 주어집성<sup>9)</sup> 등

3) 익명의 심사 위원께서 담화 연구는 연구 범위가 크고 변수가 많아 규칙화가 어렵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논의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석 자료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한 논의가 후속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4) 본고에서 분석 자료로 삼은 구어 담화는 21세기 세종 계획 구어 말뭉치 자료로 취업을 주제로 한 선후배 간의 주제 대화와 선후배 간의 일상 대화 전사 자료이다.

5) 비대조의 '은/는'과 관련하여 동일한 개념을 이르는 용어로 주제 표지가 혼용되고 있다.

6) 국어의 문장을 '화제+평언' 구조로 파악하고 화제를 문장 내 서술어와의 관계적인 개념으로 파악한 논의들로는 최현배(1965), 이승녕(1966), 채완(1977), 김선희(1983), 손호민(1981), 박승윤(1986), 이정민(1990), 최수영(1993), 정희자(1994), 박철우(1999), 정희원(2001) 등이 있다.

7) 화제의 속성으로서의 대하여성에 대한 논의로는 성기철(1985), 박승윤(1986), 임홍빈(1987), 구현정(1989) 등이 있다.

8) 화제의 속성으로서의 한정성에 대한 논의로는 양동휘(1974), 채완(1976), 박승윤(1981, 1986), 구현정(1989), 이정민(1992) 등이 있다.

9) 화제의 속성으로서의 주어집성에 대한 논의로는 이인영(1996), 정희원(2001), 전영철(2013) 등이 있다.

담화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며 선행 명사구가 화제로서 담화적 속성을 갖추었을 때 비대조의 ‘은/는’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선행 명사구가 화제로서의 담화적 속성을 갖추었지만 비대조의 ‘은/는’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sup>10)</sup>

(1) P2 : 엔진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도 있고,

P1 : 네.

P2 : 고 답에 인제 뭐~, 휠에 뭐~ 서스펜션이라고 인제 충격완화장치 있잖아.

P1 : 네.

P2 : 지혜 자동차 좋아하나?

P1 : 저요?

P2 : 어.

P1 : 이쁜 차는 좋아해요.

(2) P2 : <pause dur="5.8"/> 아 이게 지금, 십 분 녹취했다는 거야?

P1 : 네. 근데 아까 한 삼 분 하고 뺏데리 없어서. 끊졌을걸요? 아 지금 한 십삼 분 정도?

P2 : 아::, <pause dur="4.0"/> 이게:::소니 거네?

P1 : 네. 그거 막 만지면 안돼요,

(1)의 ‘지혜’는 서술어의 언급 대상으로서 대하여성, 고유 명사로서 한정

10) 한송화·원미진(2017)에서는 ‘이/가’와 ‘은/는’의 분포 양상을 결합 명사의 특성과 후행 동사의 특성에 따라 살폈는데 그 중 결합 명사의 분포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이/가’ | ‘은/는’ |
|---------|-------|-------|
| 한정 명사구  | 3.8%  | 7.9%  |
| 대명사     | 21.4% | 4%    |
| 지시적 명사구 | 22.2% | 3.3%  |

위의 표를 보면 한정 명사구는 물론이고 한정성을 지닌 대명사, 지시적 명사구에서 주격 표지 ‘이/가’의 실현율이 화제 표지 ‘은/는’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 명사구의 담화적 속성이 화제 표지 ‘은/는’ 실현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성, 담화 참여자로서 주어집성이라는 기존 논의에서의 화제 성립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화제 표지 '은/는'이 실현되지 않는다. (2)의 '이것' 또한 서술어의 언급 대상으로서 대하여성, 담화 현장에 놓여 있는 지시체로서 한정성 및 주어집성이라는 화제 성립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화제 표지 '은/는'이 실현되지 않는다.

주어집성과 관련하여 전영철(2013)에서는 정보구조 논의 안에서의 주어집성에 대한 개념적 혼동을 지적하고 정보구조는 지시적 주어집성<sup>11)</sup>이 아닌 관계적 주어집성의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영철(2013)에서는 담화 내에서 청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를 관계적 구정보로, 청자에게 새롭게 제공되는 정보를 관계적 신정보로 보았다.

(3) Q: 어제 한일전에서 어느 팀이 이겼어?

A: 한국의 이겼어.

전영철(2013)에서는 (3A)의 '한국'은 이전 발화에 의해 지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나 청자에게 이긴 팀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긴 팀으로서의 '한국'은 관계적 신정보 즉 초점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은/는'은 관계적 구정보를 이루는 것으로서 화제 표지라고 보았다.<sup>12)</sup> 그러나 정보구조 논의에서의 주어집성을 지시적 주어집성이 아닌 관계적 주어집성으로 파악한다고 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1) 전영철(2013)에서는 지시적 주어집성은 어떤 언어 표현에 대응되는 비언어적 실체의 존재가 화·청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았으며 지시적 주어집성의 관점에서 정보구조를 논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12) 전영철(2013)에서는 '은/는'이 관계적 구정보인 화제 이외에 관계적 신정보인 초점을 표지한다고 보았다.

Q: 뭐가 뛰고 있니?

A: 개는 뛰고 있어요.

전영철(2013)에서는 A의 '는'은 초점 대조 표지로서 선행 명사인 '개'가 정보 초점으로서 관계적 신정보를 이루고 대립적인 자매항을 전제함을 표지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초점은 맥락상 부여되는 기능이지 '은/는'에 의해 표지되는 기능은 아니라고 본다.

(4) P2 : <pause dur="8.3"/> 아 이 노래 나오네. <pause dur="8.5"/> 이 노래가 언제 나온 노래지?</s></u>

P1 : 이 노래, 이 노래가 뭐죠? <pause dur="9.7"/> <trunc>지</trunc> 지오 디 노랜가요? <vocal desc="웃음"/>

P2 : <unclear>가드야 가던</unclear>

P1 : 맞아요? 맞아요? 아:.,

(4)는 두 사람이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대화를 나누는 상황으로 P1은 P2가 이 노래에 대해 알고 있음을 이전 발화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청자인 P2에게 관계적으로 주어지 있으므로 화제 표지 ‘은/는’이 실현되어야 하나 ‘이/가’가 실현되었다. 반대로 (4)의 발화문과 동일한 정보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은/는’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5) P1 : 아니네? <pause dur="7.7"/> 그런 건 뭐예요? 처음 봤다 다:.

P2 : 아:~이 위에 걸 누르면은.

P1 : 네,

P2 : 타임이 나와. 십삼 분 했다는 소리고.

P1 : 아:.,

P2 : 지금 현재:~이번 타임에 한 거는? 남은 건 이만큼 남았다는 거고?

P1 : 아:~리메인 아.

(5)의 발화문 ‘그런 건 뭐예요?’는 (4)의 ‘이 노래가 뭐죠?’와 발화문의 정보구조가 동일하며<sup>13)</sup> ‘이 노래’와 ‘그런 것’은 화자와 청자에게 맥락적으로 주어지 있어 한정성 및 주어집성을 획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술어의 언급 대상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13) 익명의 심사 위원께서 (4)의 ‘이 노래가 뭐죠?’는 놀라움을 동반한 의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진정한 의문문이 아닌 것으로 일한다는 의견을 주셨다. 그러나 (4)의 ‘이 노래가 뭐죠?’는 뒤따르는 발화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담화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를 청자에게 묻는 설명의문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4)에서는 주격 표지 '이/가'가, (5)에서는 비대조의 '은/는'이 실현되었으며 조사가 교체되면 맥락적으로 자연스럽게 읽힌 발화문이 된다.

(4)와 (5)의 발화문에서 실현된 주격 표지 '이/가'와 비대조의 '은/는'은 통사 단위에서는 실현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4)와 (5)의 발화문은 문장을 이루는 구성 단위 간의 관계적 차이가 아닌 담화 영역의 차이를 보이며 비대조의 '은/는'은 화제의 전환 및 담화 영역의 설정과 관련을 맺는다.<sup>14)</sup> 즉 비대조의 '은/는'은 담화 운용과 관련을 맺는 기능 단위로서 담화적 실현 기제를 갖는다. 또 비대조의 '은/는'은 주격 표지 '이/가'와는 달리 통사 층위가 아닌 담화 층위와 관련을 맺는 문법 형태로서 발화 내 서술어가 아닌<sup>15)</sup> 담화 화제와 관련을 맺으며 맥락적 실현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비대조의 '은/는'은 형식문이 아닌 실제 담화 자료를 토대로 담화 맥락적 실현 양상과 담화적 기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3. 비대조 '은/는' 명사구의 실현 양상

비대조의 '은/는'은 통사 층위가 아닌 담화 층위와 관련을 맺는 문법 형태로 담화의 흐름에 대한 화자의 믿음과 담화 전개에 대한 화자의 의도에 의해 실현이 결정된다.

화자는 메시지 전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청자의 의식을 점검하며 청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되어 수용이 용이한 것을 중심으로 발화를 이어나갈 것이다.<sup>16)</sup> 청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된 것에 대한 화자의 판단은 주관적이며 맥락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화자는 청자에게 맥락적으로 주어져 있다

14) (4)와 (5)의 발화문이 갖는 담화 맥락 및 영역의 차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15) 정희원(1991), 정희자(1994)에서는 화제는 주어와 달리 서술어에 대한 의미적 선택 제약이나 통사적 선택 제약을 갖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화제가 통사 층위에서 운용되는 단위가 아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6) Keenan&Schieffelin(1976)에서는 청자가 담화 화제에 포함된 대상을 알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화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화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다(박성현, 2007, 164쪽 참조).

고 판단되는 것을 중심으로 화제<sup>17)</sup>를 선정한다.

담화는 의미적 긴밀성을 지닌 화제들의 연쇄로 구성되는데 담화의 전개를 위해 화제가 도입되거나 담화의 전개 과정에서 화제가 전환되어 담화의 영역이 새롭게 설정될 때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지가 수반된다. 비대조의 ‘은/는’은 화제의 도입과 전환을 알리는 표지로서 기능하며 선행 명사구와 관련된 것을 화제로 하여 담화의 영역이 설정되었음을 알린다.

앞서 살폈던 (4)와 (5)의 발화문은 전제된 맥락은 동일하나 담화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4)의 발화문은 청자의 이전 발화에 대한 응답 발화로 이전 발화와 맥락적으로 같은 담화 영역을 이루고 있다. 반면 (5)의 발화문은 화제 전환문으로 이전 발화와 담화 영역이 구분되며 전환된 화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선행 명사구에 ‘은/는’이 실현되었다.<sup>18)</sup>

비대조 ‘은/는’ 명사구의 실현은 주어집성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담화 화제의 운용 및 화역 설정과 관련을 맺는다.

(6) P1 : 그 다음에 경화 보구, 그 다음에 또 누구지?

P2 : 어.

P1 : 머리 긴 오빠,

P2 : 머리 긴 오빠 누구야?

P1 : 머리 길고 화일이 언니랑,

P2 : 아 진호.

(7) P1 : 그니까 우선 교수한테 물어볼 거를 그랬나봐, 교수한테 전화해볼 걸.

P2 : 어.

17) 이신형(2010)에서는 언어 사용자의 의식 속에 추상적인 도식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각각의 문장이 이 도식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더 큰 단위를 이루는 것을 담화 화제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비대조 ‘은/는’ 명사구의 실현이 담화 이면에 존재하여 발화들의 결속을 이루고 담화의 영역을 설정하는 담화 화제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18) 이인영(1996)에서는 화제와 주제를 구분하고 주제를 담화의 이해에 필요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화 내 발화들 간의 의미적 연결을 담당하는 명제로 정의하였다. 또 ‘은/는’은 주제물 표지로서 선행 명사구가 주제를 구성하는 핵심적 개체임을 표지한다고 보았다.



P1 : 교수를 찾아갈 것을.

P2 : 그러지 그랬어? 누군데 교수는?

P1 : <name>? 그런가 봐 <name>.

P2 : 어::.

(6)은 P1이 본 복학생에 대해 담화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P2의 ‘머리 긴 오빠 누구야?’에서 ‘머리 긴 오빠’는 이전 발화에 의해 맥락적으로 전제되어 있으나 ‘은/는’ 명사구로 실현되지 않는다. 조사를 복원한다고 해도 ‘머리 긴 오빠가’가 더 자연스럽다. P2의 발화는 P1이 제시한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전 발화와 같은 담화 영역을 이루고 있다. P2의 발화가 담화의 경계가 아님은 이후의 발화에 의해 P2가 지닌 정보의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7)은 수강 신청과 관련된 대화로 수강 신청 전에 담당 교수에게 문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P1의 발화를 끊고 P1이 수강 신청한 과목의 담당 교수로 화제를 전환하는 상황으로 이전 발화와 담화의 영역이 구분되며 화제 전환문에 ‘은/는’ 명사구가 실현되었다. 즉 ‘은/는’ 명사구는 화제 전환으로 인해 담화의 경계가 구분되어 담화의 영역이 새로이 설정되는 즉 담화 화제가 새로이 도입되는 경우에 실현되며 담화 화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화제의 중심축이 될 요소가 언어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전제되어 청자에게 맥락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한다.

(8) P1 : 저도 이제 칠 학기잖아요.

P2 : 어.

P1 : 학점도 잘 받아야 되는데. 클났네.

P2 : 이런 말이 실례일진 모르겠지만, 학점은 잘 나왔어?

P1 : 예?

P2 : 학점은 좋아?

P1 : 학점이요?

(8)은 P1의 고민에서 P1의 학점 상황으로 화제가 전환되는 담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학점’은 직전 발화에 의해 맥락적으로 전제되어 청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은/는’ 명사구 실현의 전제가 되는 언어적 맥락은 반드시 인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9) P2 : 본인은 못 느끼지? 말투가 아주 귀여워, 귀엽직스럽네.

<pause dur="5.0"/>

P1 : <vocal desc="웃음"/>

P2 : 그래? 남자 친구는

P1 : 학점이, 네.

P2 : 남자 친구는 뭐~ 어디 가고 싶어한대?

P1 : 남자 친구요? 취직 취직 취직할 거래:: 대학원 갈 거래.

P1 : 아 잘 모르겠어요. 생각 중인가 봐요.

(10) P2 : 진짜 갖고 싶은 거 영화는. 디비디로 소장하면 되지. 아니면 씨디로 구워 갖고 갖고 있던지.

P1 : 그거 헬보이는 재밌어요?

P2 : 어. 구워<phon>퓌</phon> 즐까?

P1 : 아니 근데 그거 무서운 거죠?

P2 : 무서운 거 별로 없어. 거의 없어.

(9)는 P1의 말투에 대한 발화를 끊고 P1의 남자 친구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것으로 담화 화제가 전환되는 경우로 ‘남자 친구’가 직전 발화에 전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이전 발화에서 이미 남자 친구와 관련된 담화가 선행되어 청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되어 있어 언제든지 그것과 관련된 담화가 전개될 수 있는 맥락을 이루고 있다.<sup>19)</sup> (10)은 영화를 내려받아 보는 방법에 대한 것에서 영화 ‘헬보이’에 대한 것으로 담화의 화제가 전환되는 경우로

영화 ‘헬보이’ 역시 그 이전 발화에서 이미 영화 ‘헬보이’의 개봉과 관련된 담화가 선행되어 그것과 관련된 담화가 전개될 수 있는 맥락을 이루고 있다.

(8)~(10)의 ‘은/는’ 명사구는 모두 이전 발화에 의해 맥락적으로 전제된 것으로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화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직전 발화에 의해 맥락적으로 전제된 (8)의 경우는 ‘은/는’ 명사구만으로 화제 전환이 이루어지나 (9)에서는 ‘그래?’, (10)에서는 ‘그거’가 ‘은/는’ 명사구에 선행하여 화제가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 (8)은 직전 발화와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환된 화제로 청자가 주의를 바로 환기할 수 있는데 반해 (9), (10)은 전환된 화제와 관련된 맥락이 동떨어져 있어 청자가 바로 주의를 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특별한 언어적 장치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비대조의 ‘은/는’은 (8)~(10)에서와 같은 언어적 맥락뿐만 아니라 상황적 맥락을 전제로 하여 실현되기도 한다.

(11) P2 : 공대가 취직은 잘 되지.

P1 : 그래요?

P2 : 지만 열심히 하면은.

P1 : 취직이 어디예요. 취직이,

P2 : 그러게. 지혜는 어디 가고 싶은데?

P1 : 저요?

P2 : 응.

P1 : 은행이요.

P2 : 수협?

P1 : 농협.

(11)은 취직이 잘 되는 계열에 대한 발화를 끊고 청자의 희망 진로로 화제

19) Matsuzaki(2013)에서는 텍스트는 하나의 주제에서 잠시 다른 주제로 옮겨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주제로 옮겨다가 다시 돌아오는 지그재그형으로 주제가 전개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가 전환되어 담화가 진행된다. ‘지혜’는 담화 화제의 중심축을 이루며 이전 발화에 의해 맥락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나 담화 참여자로서 상황적으로 공유되어 있다.

담화 상황에 공유되어 있는 것 즉 담화 참여자, 담화 참여자 간 공유된 정보, 담화 현장에 의해 공유되어 있는 것은 청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된 것으로서 전제된 맥락을 이룬다.

(5)는 담화 간 휴지 구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전 발화의 화제가 중단되고 새로운 화제로 담화가 전개된다. (5)에서 ‘그런 것’은 담화 현장에 놓여 있는 지시체인 녹음기로서 ‘녹음기의 기능’이라는 새로운 담화 화제의 중심축을 이루며 담화 상황에 의해 맥락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12) P2 : 아::, 비가 이렇게 오냐. <pause dur="17.6"/> 저녁은 먹었어?

P1 : 저녁이요? 네::.

(12)도 발화 간 휴지 구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전 발화와 맥락적 흐름이 단절되고 새로운 화제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저녁’은 저녁 식사 시간이라는 담화 상황에 의해 맥락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13)

P2 : 핸드폰 이쁘다,

P1 : 핸드폰이요?

P2 : 응,

P1 : 오빠

P2 : 싸요네?

P1 : 네. 오빠 영화는 많이 보세요?

P2 : 영화?

P1 : 네.

P2 : 영화는. 주로 그~, 극장 갈 시간이 없으니까.

P1 : 네. 따운 받아서요?

P2 : 어 그래. 따운 받아서 주로 보지.

(14) P1 : 오빠 회사는 다니실만 하세요?

P2 : 그렇지 뭐~, <vocal desc="웃음"/>

P1 : 그래도 잘 다니셔야죠,

P2 : 그래야지:, 어떻게 들어간 회산데. 예휴,

(13)은 P1이 자신의 핸드폰에 대한 P2의 발화를 끊고 '영화'로 화제를 전환하여 담화를 전개하는 상황이다.<sup>20)</sup> (13)의 '오빠 영화는 많이 보세요?'는 화제 전환을 위한 맥락적 연결 고리로서 '영화는'은 화제의 전환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오빠'는 담화 참여자로 P1의 핸드폰에 대한 발화를 끊고 청자와 관련성이 있는 화제로 전환될 것임을 환기시켜 맥락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한다.

(14)는 담화의 도입문으로 '청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공유된 정보를 전제로 하며 청자의 직장 내 업무에 대한 담화가 이어진다. (14)의 '오빠'는 청자와 관련된 화제로 담화가 전개될 것임을 알려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며 '회사는'은 청자와 관련된 것 중 직장 생활에 대한 것으로 담화가 전개될 것임을 표지하는 기능을 한다.

(8)~(14)의 예에서 살폈듯이 '은/는' 명사구의 실현은 담화 참여자 간에 전제된 맥락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이전 발화의 맥락적 흐름에서 화제가 전환되어 담화가 전개될 때, 담화 상황에 의해 공유된 정보를 화제로 하여 담화 화제가 도입되거나 화제가 전환되어 이전 담화와 경계가 구분될 때 실현된다.

20) 이후의 담화는 영화를 보는 장소, 볼 만한 영화, 영화를 내려받는 방식 등 '영화'와 관련된 하위 화제들로 담화가 진행된다.

#### 4. 비대조 ‘은/는’의 담화적 기능

비대조의 ‘은/는’은 선행어를 중심축으로 한 새로운 화제로 담화가 시작되거나 전환될 때 실현되며 비대조 ‘은/는’의 선행어는 언어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청자에게 맥락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조건이 주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은/는’ 명사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 (15) P2 : 아~ 저 작년에 국토대장정하던 친군데,  
 P1 : 뭐? 뭐라구?  
 P2 : 국토대장정 같이 하던,  
 P1 : 아,  
 P2 : 그 후밴데  
 P1 : 어. 몇 살인데?  
 P2 : 칠육년생.  
 P1 : 어 어느 학교 다녀?  
 P2 : 고대.

(15)는 P1이 미팅할 상대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상황으로 P1이 P2가 미팅 상대자인 자신의 후배에 대해 소개하려는 발화를 끊고 미팅 상대자의 나이와 학교를 물음으로써 대화가 진행된다. P1의 ‘몇 살인데?’와 ‘어느 학교 다녀?’는 하위 화제<sup>21)</sup>로서 각각 ‘나이는?’, ‘학교는?’으로 교체되어도<sup>22)</sup>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sup>23)</sup>

21) 박성현(2007)에서는 앞뒤의 말차레와 확연히 구별되는 말차레들이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 결속된 하나의 단위를 대화장(Floor)으로 보고 대화장 내의 말차레들이 결속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것을 대화 화제(Conversation Topic), 대화 화제와 관련되어 각 말차레나 몇 개의 말차레들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하위 대화 화제(Sub-conversation Topic)라고 하였다.

22) 익명의 심사 위원께서 P1의 ‘몇 살인데?’와 ‘어느 학교 다녀?’의 경우 ‘나이가’, ‘학교가’로 교체되어도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구어 담화는 그 특성상 문법적 허용의 범위가 넓고 언어적 직관과 맥락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동일한 담화의 흐름을 이루고 있는 (16)에서 ‘파’와 ‘학교’에 ‘은/는’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가’보다는 ‘은/는’의 실현이 더 타당하다고 보며 발화된 언어 자료가 언어적 직관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16) P2 : 지혜 남자 친구 있어?

P1 : 있죠,

P2 : 아 그래 니가 없으면 말이 안 되지.

P1 : <vocal desc="웃음"/> <pause dur="3.3"/>

P2 : 남자 친구 몇 살인데?

P1 : 한 살 한 살 많아요.

P2 : 한 살?

P1 : 네.

P2 : 뭐~ 짜는 뭐야?

P1 : 기계공학과요.

P2 : 학교는?

P1 : 연세대학교요.

P2 : 아, 몇 학년이야 그러면?

(16)은 (15)와 유사한 상황으로 P1의 남자 친구와 관련하여 하나의 대화장 안에서 화제가 분화되며 담화가 전개되고 있다. P2의 ‘남자 친구 몇 살인데?’는 P1의 남자 친구로 화제를 전환하여 담화를 시작하는 발화문으로 ‘남자 친구 나이는?’ 이나 ‘남자 친구는 몇 살이야?’로도 교체가 가능하다. 또 마지막 P2의 발화 ‘아, 몇 학년이야 그러면?’ 역시 ‘학년은?’으로도 교체가 가능하나 ‘은/는’ 명사구가 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화문의 구성적 차이를 보인다.

화제가 전환되는 상황에서 ‘은/는’ 명사구가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16)에서와 같이 연결 어미 ‘-는데’와 접속 부사 ‘그러면’이 하위 화제들을 연결시켜 담화의 결속을 이루는데 이는 화제 표지로 알려진 비대조의 ‘은/는’이 담화의 응집<sup>24)</sup>을 이루는 결속 장치로서 기능함을 의미한다. ‘은/는’ 명사구는

23) 담화 기능이나 의미에는 차이가 없지만 화용적으로는 ‘은/는’ 명사구로 실현되는 것이 더 격식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 김일웅(1980)에서는 응집은 텍스트 기저의 개념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긴밀한 의미적 관련성을 의미하고 의미적 관련성들을 텍스트 표층에서 실현시키는 언어적 장치를 결속기제라고 하였다.

화제 전환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의 기능을 대신하기도 한다.

(17) P2 : 본 슈프리머시 꼭 보고 싶어.

P1 : 아:.

P2 : 본 슈프리머시.

P1 : 그러면은 그런 거 따운 받고 이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P2 : 오래 걸리지.

P1 : 오래 얼마나요?

P2 : 아: . 한 두 시간?

(17)은 ‘본 슈프리머시’라는 영화에서 ‘영화를 내려받는 것’으로 화제가 전환되는 상황으로 이전 발화에서 영화를 내려받는 방식과 관련된 담화가 선행되었고 화제 전환이 접속 부사 ‘그러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7)의 화제 전환문 ‘그러면은 그런 거 따운 받고 이러는데’는 ‘따운 받는 거는’으로도 교체가 가능하다. 이때 ‘은/는’은 접속 부사 ‘그러면’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현(2007)에서는 담화 표지가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청자의 의식에 선행어를 도입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18) a. 파우더를 있지 요런 걸 쓰래

b. 응 그게 트윈케익이 보면 머리 여기에 제일 나쁘대

c. 근데 그 얇은 분 있지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래

박성현(2007)에서는 (18a)와 (18c)의 ‘있지’가 말을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주의를 끄는 이른바 담화 표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청자의 의식에 선행하는 명사 ‘파우더’와 ‘얇은 분’에 대해 말할 것임을 표시하는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즉 담화의 화제를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18)의 예문에 다음과 같이 ‘은/는’이 교체되어도 된다고 보았다.



- (19) a. 파우더는 요런 걸 쓰래  
 b. 응 그게 트윈케익은 머리 여기에 제일 나쁘대  
 c. 근데 그 얇은 분은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래

박성현(2007)에서는 (18a,c)의 ‘있지’와 (18b)의 조건절이 담화의 화제를 제시하는 기능이 있으며 (19a)의 ‘파우더는’, (19b)의 ‘트윈케익은’, (19c)의 ‘그 얇은 분은’으로 교체되어도 된다고 보았다. 이는 화제를 제시하여 담화의 결속을 이루는 통사적 구성과 ‘은/는’의 기능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은/는’이 담화 표지로서 담화의 응집에 관여함을 보여 준다. (18b)의 조건절과 관련하여 이신형(2010)에서는 연속된 명제가 조건·양보·목적·이유 등의 의미적 개념에 의해서 담화의 응집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연속된 명제가 부연·향진·모순·이접 등의 논리적 개념에 의해서도 담화의 응집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20) P2 : 상대적으로::근데 쯤::끔 인제. 뭐라 그래야 되나. 전기 전자 부문보다는.

P1 : 예.

P2 : 약간 쯤 빡세. 그런 업종에 가지. 빡세다는 건, 중공업이라든지.

P1 : 아::.

P2 : 말만 들어도 쯤 이제,

(21) P1 : 그거 헬보이는 재밌어요?

P2 : 어. 구워 뭐 출까?

P1 : 아니 근데 그거 무서운 거죠?

P2 : 무서운 거 별로 없어. 거의 없어. 무서운 거는 액션의 일부이기 때문에.

칼 쓰고 막 이런 거야.

(20)은 기계과의 취업 진로를 담화 화제로 하여 대화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화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0)의 ‘빡세다는 건’은 새로운 화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앞선 발화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루어지는 발화문의 구성 단위로서 발화의 결속과 관련을 맺는다. (21)도 영화 ‘헬보이’의 내용을 담화 화제로 하여 대화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무서운 것’은 전환된 화제가 아니라 앞선 발화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루어지는 문장의 구성 단위이며 ‘은/는’이 실현되어 발화의 결속을 표지한다.

이상에서 살펴듯이 담화 단위에서 운용이 결정되는 ‘은/는’은 담화 표지로서 선행어와 관련된 화제로 담화가 시작되거나 화제가 전환될 때 실현되어 담화의 경계를 구분 짓고 새로운 담화의 영역이 설정됨을 표지하여 담화의 의미적 결속을 이룬다. 또한 동일한 담화 영역 내에서 발화 간 응집을 이루는 결속 장치로 기능한다.

## 5. 결론

비대조의 ‘은/는’은 통사 층위가 아닌 담화 층위와 관련을 맺는 문법 형태로 발화의 결속을 이루며 담화의 영역을 형성하는 담화 이면의 추상적인 도식으로서의 화제의 운용과 관련을 맺는다.

화제의 운용과 관련하여 비대조 ‘은/는’ 명사구는 담화 화제가 도입되거나 화제 전환으로 인해 담화의 경계가 구분되어 담화의 영역이 새롭게 설정되는 즉 담화 화제가 새롭게 도입되는 경우에 실현되며 담화 화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화제의 중심축이 될 요소가 청자에게 맥락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한다.

비대조 ‘은/는’ 명사구는 화제의 중심축으로서 전제된 맥락을 필수조건으로 하는데 전제된 맥락은 언어적 맥락과 상황적 맥락으로 구분된다. 언어적 맥락은 이전 발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반드시 인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직전 발화가 아닌 이전 발화에 의해 맥락이 전제될 경우 청자가 담화 전개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특별한 언어적 장치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적 맥락은 담화 참여자, 담화 참여자 간 사전 공유된 정보, 담화 현장에

의해 공유되어 청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은/는' 명사구 실현의 전제된 맥락을 이룬다.

비대조의 '은/는'은 전제된 맥락에 의해 청자에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화제로 담화가 시작되거나 담화 전개 과정에서 화제가 전환되어 이전 담화와 경계가 구분될 때 실현되어 선행 명사구를 중심축으로 한 화제가 새롭게 설정되었음을 청자에게 알림으로써 담화가 의미적 결속을 이루며 진행되도록 한다. 즉 비대조의 '은/는'은 담화 표지로서 담화의 경계를 구분 짓고 새로운 담화의 영역이 설정됨을 표지하며 동일한 담화 영역 내에서 발화 간 응집을 이루는 결속 장치로 기능한다.

## ■ 참고문헌

- 박성현, 『한국어 대화 화제와 말차례 체계』, 집문당, 2007.
- 임흥빈, 『국어의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1987.
- 구현정, 『조건과 주제』, 『언어』 14, 한국언어학회, 1989, 53~75쪽.
- 김규현, 『담화와 문법: 대화분석적 시각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제7권 1호, 담화인지언어학회, 2000, 155~184쪽.
- 김선희, 『"조사 '가'의 의미와 주제"』, 『연세어문학』 16집, 연세대 국어국문과, 1983, 28~41쪽.
- 김영희, 『정태적 상황과 겹주어 구문』, 『한글』 169, 한글학회, 117~147쪽.
- 김일웅, 『국어의 '주제-설명'구조』, 『언어연구』 3, 부산대 어학연구소, 1980, 95~118쪽.
- 박순함, 『격문법에 입각한 국어의 겹주어에 대한 고찰』, 『어학연구』 6, 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소, 1970, 11~32쪽.
- 박승윤, "Studies in Korean Syntax: Ellipsis", *Topic and Relative Construc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1981.
- \_\_\_\_\_, 『담화의 기능상으로 본 국어의 주제』, 『언어』 제11권 제1호, 한국언어학회, 1986, 1~15쪽.
- 박철우, 『한국어의 화제: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언어연구』 19,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1999, 75~96쪽.
- \_\_\_\_\_, 『보조사의 기능과 정보구조』, 『국어학』 73, 국어학회, 2015, 269~307쪽.
- 성기철, 『국어의 주제 문제』, 『한글』 188, 1985, 65~89쪽.
- 손호민, 『Multiple topic constructions in Korean』, 『한글』 173~174, 한글학회, 1981, 669~685쪽.
- 신창순, 『국어의 주어 문제 연구』, 『문법연구』 2, 문법연구회, 1975, 131~170쪽.
- 양동휘, 『On the notion of Topic』, 『이대 한국문화 연구원 논총』 23·24, 1974, 209~236쪽.
- 이승녕, 『15世紀 國語에서의 「-는」系助詞의 機能에 對하여』, 『서울대학교 논문집』 Vol.12, 서울대학교, 1966, 3~24쪽.
- 이신형, 『화제 중심의 텍스트 응집성 고찰』, 『청람어문교육』 45집, 청람어문교육, 2012, 297~323쪽.
- \_\_\_\_\_, 『화제-초점의 의미기능과 텍스트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인영, 『"주제"와 "화제"-기존 화제개념에 대한 재고-』, 『어학연구』 제32권 제1호, 1996, 61~99쪽.
- 이정민, 『주제별로 훑어본 서울대 언어학 40년: 통사론·의미론 및 음운론의 공식적 연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Vol.23, 인문논총, 1990, 85~90쪽.
- \_\_\_\_\_,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 『국어학』 22, 국어학회, 397~424쪽.
- 이희자, 『국어의 '주제부/설명부'구조 연구』, 『국어학』 24, 국어학회, 1994, 319~351쪽.
- 임동훈, 『"은/는"과 중칭의 의미 관계』, 『국어학』 64, 국어학회, 2012, 217~271쪽.
- 임흥빈,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서울대학교, 1972.
- \_\_\_\_\_, 『주격중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1974, 111~150쪽.
- 전영철, 『한국어의 제언문/정언문 구별과 정보구조』, 『국어학』 68, 국어학회, 2013, 99~133쪽.
- \_\_\_\_\_, 『한국어 정보구조표지 '은/는'의 의미-대조 의미를 중심으로-』, 『언어 학』 85, 한국언어학회, 2019, 99~137쪽.
- 정희원, 『한국어의 대조화제와 화제, 초점: 정보 구조적인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정희자, 『주제의 담화 기능에 관하여』, 『언어』 19-2, 한국언어학회, 1994, 563~598쪽.
- 채 완, 『조사 '는'의 의미』, 『국어학』 4, 국어학회, 1976, 93~111쪽.
- \_\_\_\_\_, 『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 『국어연구』 39, 국어연구회, 1977.
- 최수영, 『한국어 주제/주어 조사 '는', '가'의 패러다임』, 『어학연구』 2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93, 49~73쪽.
- 최현배, 『날말에 대하여』, 『한글』 Vol. 135, 한글학회, 1965, 504~535쪽.
- 한송화·원미진,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의 '은/는'과 '이/가'의 분포와 조사 선택 요인 분석』, 『언어사실과 관점』 Vol. 40,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7, 49~83쪽.
- Matsuzaki Mahiru, 『한국어 텍스트의 주제어 생략과 결속』,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3, 464~477쪽.
- Keenan (Ochs), E. and Schieffelin, B., "Topic as a Discourse Notion: A Study of Topic in Conversations of Children and Adults", *In Subject and Topic*, C. Li (ed),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Mechanism of Realization and Discourse Functions of Non-Contrast ‘Eun/Neun’ Focusing on Spoken Discourse

Seo, Jeong-Suk\*

In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structure, the Non-Contrast ‘eun/neun’ is regarded to signify that the preceding noun phrase is the subject of reference in the predicate within the sentence and the preceding noun phrase is considered to have attributes of discourse such as aboutness, limitedness, and givenness. However, when the preceding noun phrase has the attribute of topic but is realized as a nominative case marker ‘ei/ga’ or a postposition – free phrase, the discussion of information structure perspective has explanatory limitations in the case when the nominative case marker ‘ei/ga’ and topic marker ‘eun/neun’ are realized in the same speech structure and is not interchangeabl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chanism of realization and discourse functions of Non-Contrast ‘eun/neun’ by approaching the explanatory limitations of the discussions on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structure from a discourse perspective.

The Non-Contrast ‘eun/neun’ relates to the operation of topic in the form of grammar which relates to the discourse level, not to the syntactic level.. The topic is involved in the binding of speech as an abstract diagram behind discourses, and the preceding nominative phrase of Non-Contrast ‘eun/neun’

---

\* Ka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English Culture Content Visiting Professor

works as the central axis of discourse topic.

The noun phrase with Non-Contrast 'eun/neun' essentially requires the premised context as the central axis of discourse topic, and this is realized when a discourse begins with a topic activated to the listener by the premised context, or when the topic is changed in the course of the discourse, separating the boundaries from the previous discourse. The Non-Contrast 'eun/neun' separates the boundaries of a discourse, marks the establishment of a new discourse area, and also functions as the binding mechanism for cohesion between speeches within the same discourse area.

**Key words** : Information Structure, Topic Markers, Discourse Topic, Discourse Levels, Operation of Topic, Context, Binding, Cohesion

